

# 장백산천지

제 187 호

2011년 2월 4일

금요일

## 자비로운 리홍지사부님께 새해명절 인사를 드렸다.



연변조선족 파룬따파제자가 드림

2011년 새봄을 맞으며 세계각지의 파룬따파제자들이 손수 제작한 년하장, 시가, 동화 등을 명혜망에 보내어 자비로운 리홍지사부님께 명절의 인사를 드렸다.

아래에 일부 년하장을 골라 여기에 싣는다.



흑룡강해림시 파룬따파제자가 드림



한국부산광역시 파룬따파제자가 드림



사우디아라비아 파룬따파제자가 드림

## 마르크스는 어떻게 마귀로 되었는가? (런재 5)

### 공산사교에서 퇴출하여 질곡표기를 없애버리자

한 로중공당원이 조동되어 고향 사천으로 돌아간 후 반평생 마레주의교연조 조장을 담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놀라서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원래 가입한것은 마귀교였다.》 그의 온집 식구들은 선후로 퇴당, 퇴단, 퇴대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의 '벗'이 되지 않으려면 자동적으로 탈당만 해서는 부족하다. “내려가 나를 동반”하는 운명을 개변하려면 철저히 마귀사탄과 결연해야 한다.》 라고 권했다.

중공의 원로들은 잔혹한 내부투쟁속에서 온갖 모욕을 받았으며 집도 잃고 가족도 잃은것은 문화대혁명때문이라고만 여겼을뿐 공산당은 시비를 전도하는 공포의 사교라는것을 전혀 몰랐으

며 일부 로간부들도 마르크스를 부정하는것은 령혼을 잃은것이고 “죽은후에 마르크스를 만나보는”것을 영광으로 느끼며 마르크스가 무산계급을 멍청이, 불량배, 엉덩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당원들은 “지옥에 떨어져 그와 동반하라”고 말한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였다.

마귀교의 사령부체인 마르크스주의를 숭배한 공산사당은 60년동안 줄곧 5천년의 자연생태와 문화도덕을 훼멸했고 중국 8천만 인민들을 도살했으며 신주대지에 크나큰 재난과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천멸중공”의 날이 가까스로 다가오고 있다. 질곡표기가 찍힌 모든 사람들은 공산당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하루속히 “3 퇴”하여 자신의 미래와 평안을 확보해야 한다. (끝)

# 신기한 초능력 우연일까?

파룬궁학원들은 수련과정에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 아래에 연변파룬궁학원들이 친히 겪은 우연이 아닌 진실한 몇개 사실을 싣는다.

## 땅에 떨어진 모택동초상화



2007년 10월 중순의 어느날, 나는 빠스를 타고 고모집으로 가는 도중에 차창밖을 내다보니 한 4층청사위에 광고판이 4개 걸려있었는데 그중 동쪽 광고판은 모택동초상화였다. 나는

즉시 《우리 중국인민들에게 재난을 가져다준 모택동초상화가 아직도 걸려있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발정념했다. 이튿날 그곳에 가보니 신기하게도 모택동초상화가 땅에 떨어져있었다.

## 1분도 안되어 꺼진 산불

2008년 4월 5일(청명절) 오전 10시, 이란진 모 산에서 성묘하던 나는 떠들썩하는 소리를 듣고 산아래를 내려다보니 약 4000평방미터(너비 20미터, 길이 200미터)나 되는 벌판이 불에 타고 있었는데 불에 탄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끔 부러져 내려앉았다. 어느새 삼림경찰들이 달려와서 불을 끄려했으나 세찬 불길앞에서 어쩔수 없었다. 이때 나는 산불이 꺼지고 인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거듭 정념을 발하였다. 과연 기적이 나타났다. 타오던 세찬 산불이 1분도 안되어 꺼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나의 가족과 친척들은 파룬대법의 초능력에 몹시 탄복했다.

## 파룬따파는 특효약보다 더 특효가 있다

2006년 가을 어느날, 나는 친척집에 갔다가 개미가 들어있는 해바라기씨 한주머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후, 우리 집안은 개미떼가 옥실거렸다. 나는 살충약을 사서 매일 쳤지만 소용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개미는 더욱 성행하여 이불, 옷장, 식탁 어디에나 개미천지였다. 발정념 위력이 크다고 느낀 나는 《개미들아, 이곳은 너희들이 있을곳이 아니다. 밖으로 나가라.》라고 묵념을 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집에는 한마리의 개미도 찾아볼수 없었다. 여기에서 나는 “파룬따파는 특효약보다 더 특효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다.



# 억울하게 세상 뜬 파룬궁학원 허현자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다. 연변대학 영어계 부교수이며 조선족파룬궁학원 허현자(許顯子) 부교수는 파룬따파를 견지한다는 이유로 연변대학 중공 당원들에게 비판투쟁을 받았고 당원직을 취소당했다. 2000년 2월, 그는 북경에 상방했다는 “죄”로 연길구류소에 15일동안 갇혔다. 이때로부터 악인들은 그의 집을 수색하고 그를 뒤따르며 감시했다. 악인들은 그를 세뇌반에 가두고 박해를 감행했으며 로동교양을 시켰다. 그가 퇴직한후에도 연변대학지도부에서는 그를 “전화”시키려고 빈번히 그의 집에 드나들었으며 길림성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그의 집에 오래동안 머물러있으면서 “전화”시키려는 정신적인 박해를 계속했다. 연변에 있는 악인들도 그의 집에 자주 와서 소란을 피우고 위협공갈하며 수차 집수색을 했다.

오래동안 중공의 박해와 시달림을 받은 허현자는 2007년 10월 4일에 원한을 품은채 억울하게 세상을 떴다.



## 연변박해소식

- 지난 1월 19일, 연길시파룬궁학원 양건화(楊建華)는 연변병원부근에서 진상을 이야기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2010년 9월 1일, 왕청현파룬궁학원 김국량(金國良)은 춘양진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왕청현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고 자가용차와 컴퓨터, 프린터 등을 몰수당했다. 그는 2010년 12월 10일에 3년판결을 받고 지금 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1월 31일, 도문시석현진 파룬궁학원 왕위평(王偉平)은 도문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집수색을 당했다.
- 2010년 6월에 로동개조 1년판결을 받은 도문시석현진 파룬궁학원 지숙금(迟淑琴)은 장춘흑취자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아 고혈압증세가 엄중해져 입원했다.

선약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